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김성주 부소장 (sjkim22@bsfng.com)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sfng.com)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은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수출 1위 지역이었던 EU의 수입수요 위축, 중국의 EU 수출 부진에 따른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동남권 1위 수출 품목인 선박수출 감소 등 삼중고(三重苦)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동남권 수출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EU의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및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및 EU 경제 회복으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여 전세계적인 선박량 과잉문제가 완화됨으로써 선박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제 및 수입수요 증가세가 확대되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항공기부품 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등 신흥국 수출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부진했던 석유제품 화학원료 등이 다시 회복되고 철강 합성고무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세는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었으나 수출의존도는 더욱 상승

동남권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 5년간(2004~08년) 연평균 23.6% 증가하여 전국 수출 증가율(16.8%)을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수출에서 동남권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6.6%에서 2008년 35.2%로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5년간(2009~13년) 동남권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1%로 크게 둔화되었고 2013년 전국대비 수출 비중도 28.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수출 변화

(%)

구 분	연평균 증가율		수출 비중		
	2004~08년	2009~13년	2003년	2008년	2013년
동남권	23.6	1.1	26.6	35.2	28.0
(부산)	21.6	0.6	2.5	3.0	2.4
(울산)	23.4	3.0	14.5	18.7	16.3
(경남)	24.2	-1.8	9.9	13.5	9.3
전국	16.8	5.8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경제의 수출의존도(수출액/GRDP)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전국보다 높아 세계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에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까지 50%대에 머물렀던 동남권의 수출의존도는 2008년 이후 80%를 넘어서고 있다.

동남권의 수출의존도 변화

(%)

구 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국
2004년	54.9	16.0	104.7	50.3	35.0
2005년	54.4	14.4	111.0	46.9	33.5
2006년	58.4	15.6	121.5	48.5	34.1
2007년	60.5	17.9	123.6	49.1	35.1
2008년	89.6	25.2	165.8	84.4	45.2
2009년	86.6	21.8	151.3	90.2	43.5
2010년	81.8	24.0	139.5	82.0	46.0
2011년	92.7	26.0	164.4	83.9	49.6
2012년	84.4	24.0	155.1	71.4	48.4

주 : 수출의존도 = (수출액 / 명목 지역내총생산)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주요 수출 상대국에서 EU 순위 하락

2013년 동남권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2위는 미국, 3위는 EU이다. 2004~10년 중 최대 수출지역 EU는 2012년 이후 3위로 밀려났으며 중국은 2004~10년 중 2위 자리를 차지하다가 2011년부터 동남권 최대 수출국 자리에 올랐다. 미국은 2004~11년 중 3위에서 2012년 이후 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9년을 제외하면 4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 5위에 있던 홍콩은 석유제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선박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5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수출 상대국 순위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4년	EU	중국	미국	일본	홍콩
2005년	EU	중국	미국	일본	홍콩
2006년	EU	중국	미국	일본	홍콩
2007년	EU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2008년	EU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2009년	EU	중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2010년	EU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2011년	중국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2012년	중국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2013년	중국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주 : 조세피난처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선박은 동남권 수출품목 1위 유지

동남권 1위 수출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이다.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대체로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동남권의 수출품목 변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04년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가정용회전기기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합성원료	철강관및철강선
2005년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합성원료	철강관및철강선	섬유및화학기계
2006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합성원료	동제품	철강관및철강선
2007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건설광산기계	동제품	석유화학합성원료	섬유및화학기계
2008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합성원료	철강관및철강선	공기조절기및난방기
2009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합성원료	금은및백금	공기조절기및난방기	레이및철구조물
2010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합성원료	금은및백금	철강판
2011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금은및백금	석유화학합성원료	철강관및철강선	무선통신기기
2012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금은및백금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	원동기및펌프	철강관및철강선
2013년	선박해양구조물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합성원료	원동기및펌프	금은및백금	기초유분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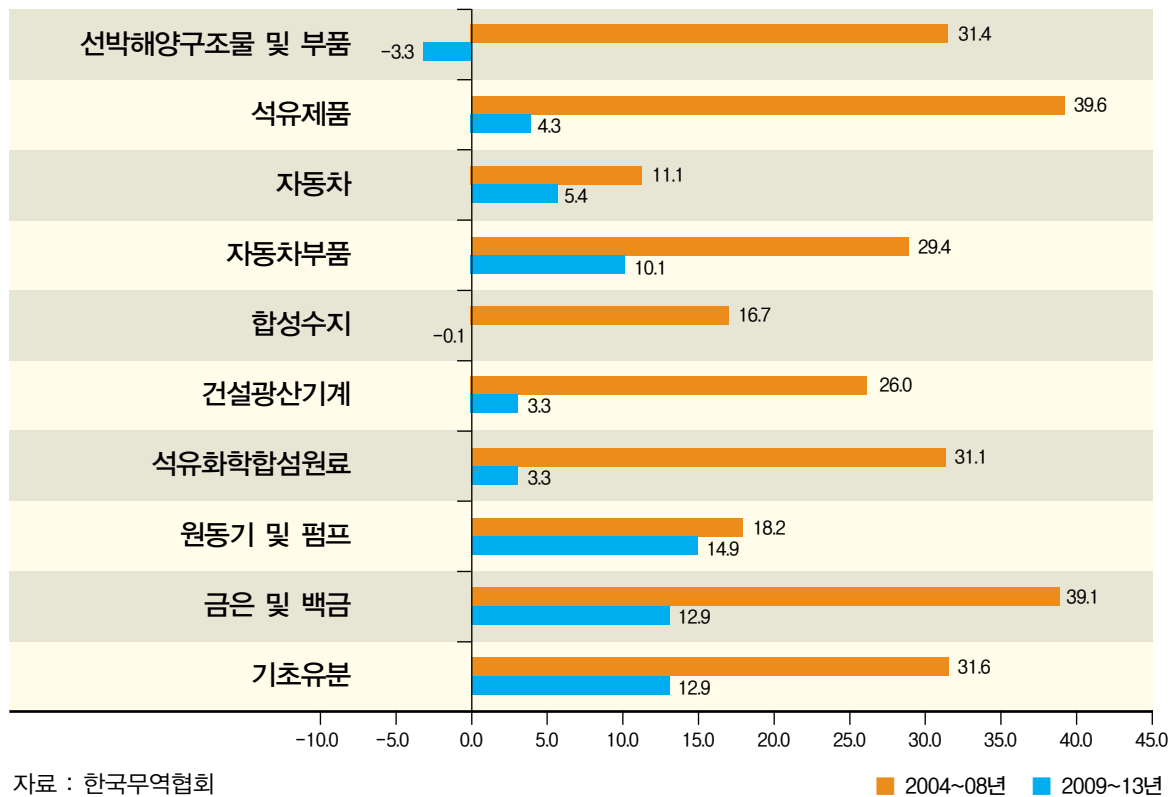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의 10대 수출품목(MTI 3단위 기준)은 모두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해양구조물은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31.4% 성장했으나 2009~13년 중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황 지속으로 연평균 3.3% 감소하였다. 또한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신장세가 가장 높은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이며 연평균 14.9%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2012년 9위, 2013년 8위 자리까지 뛰어 올랐다.

동남권의 수출품목 연평균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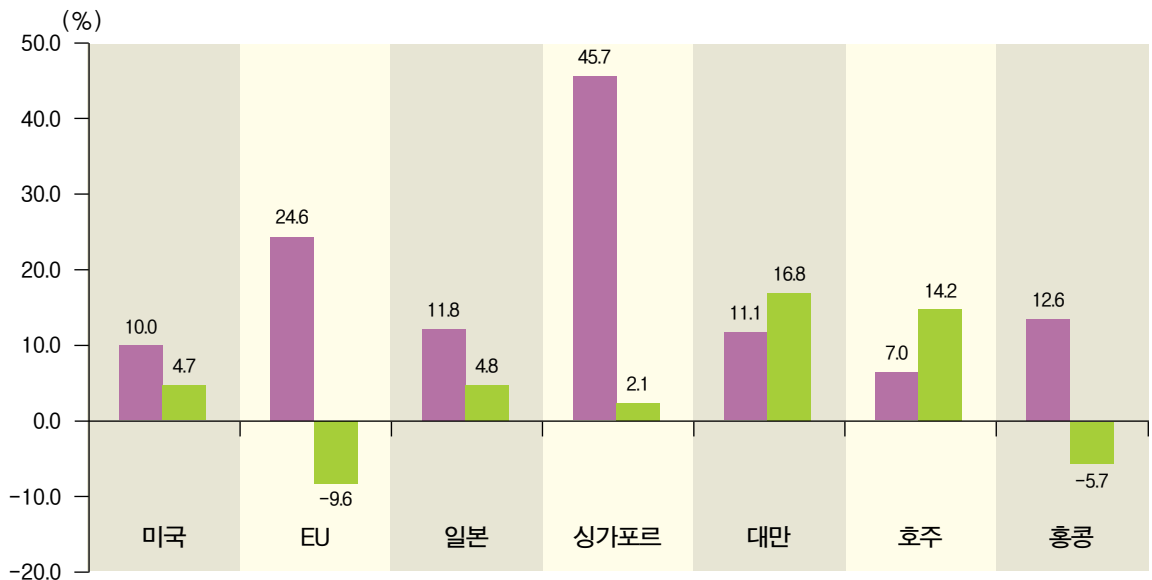


선진국 수출은 EU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대만 호주 약진

금융위기 이전 동남권 최대 수출국이었던 EU는 연평균 2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 연평균 9.6% 하락하며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또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 신장률도 위기 이후 절반 수준 이하로 둔화되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대만과 호주의 증가세가 주목된다. 대만은 2004년 선박 수출 뿐 아니라 저항기 변성기 등 수동부품과 선재 봉강 등 철강제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신장률(16.8%)이 금융위기 이전(11.1%)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석유제품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위기 이후 연평균 14.2%의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의 주요 선진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4~08년 ■ 2009~13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수출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견인

동남권의 미국에 대한 수출 1위 품목은 자동차로 나타났다. 2006~07년 석유제품 2008년 무선통신기기가 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전후 10년 동안 줄곧 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석유제품은 1~3위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나 2010년 이후 4년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5위권은 자동차부품 섬유 및 화학기계 선박해양구조물 건설광산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매년 순위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08년 1위 품목을 차지하는 등 금융위기 이전에는 5위권 내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 2위를 마지막으로 상위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자동차는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6.3% 감소하였으나 2009~13년 중 연평균 16.0%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자동차부품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연평균 12.8% 증가율을 보이며 계속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 신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37.2%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에 항공기 부품 고무제품 등은 증가세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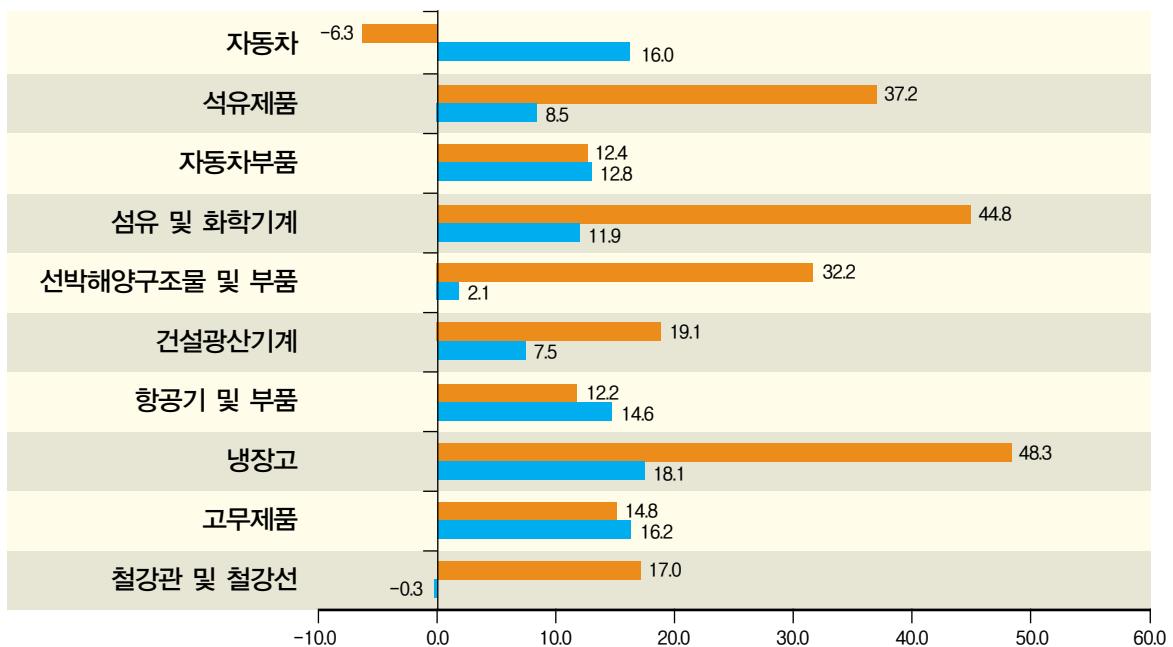
동남권의 대미국 수출품목 변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04년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석유제품	선박해양 구조물	자동차 부품	건설 광산기계	가정용 회전기기	난방및 전열기기	철강관및 철강선	항공기및 부품
2005년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건설 광산기계	무선 통신기기	선박해양 구조물	섬유및 화학기계	철강관및 철강선	항공기및 부품	냉장고
2006년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건설 광산기계	섬유및 화학기계	항공기및 부품	냉장고	철강관및 철강선	고무제품
2007년	석유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및 화학기계	건설 광산기계	항공기및 부품	무선 통신기기	철강관및 철강선	기초유분	고무제품
2008년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해양 구조물	섬유및 화학기계	철강관및 철강선	건설 광산기계	정전기기	항공기및 부품
2009년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석유제품	섬유및 화학기계	자동차 부품	정전기기	항공기및 부품	냉장고	고무제품	기계요소
2010년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및 화학기계	정전기기	항공기및 부품	냉장고	고무제품	철강관및 철강선	기초유분
2011년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및 화학기계	선박해양 구조물	냉장고	건설 광산기계	고무제품	철강관및 철강선	항공기및 부품
2012년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 구조물	자동차 부품	섬유및 화학기계	건설 광산기계	냉장고	고무제품	철강관및 철강선	기초유분
2013년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및 화학기계	선박해양 구조물	건설 광산기계	항공기및 부품	냉장고	고무제품	철강관및 철강선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의 대미국 수출품목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4~08년 ■ 2009~13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에 대한 수출에서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증가세 주목

동남권의 일본에 대한 수출 1위 품목은 석유제품이다. 최근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은 및 백금은 2008년 이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2005년 이후 3위에서 밀려났던 철강관 및 철강선은 2010년부터 다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9.7%에서 2009~13년중 11.2%로 증가율이 더욱 높아졌다. 자동차부품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3%로 신장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2009~13년 중 금은 및 백금의 신장률은 19.1%로 금융위기 이전 61.1%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고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13.7% 성장했던 철강관 및 철강선 수출은 2009~13년중 연평균 0.5% 감소하였다. 또한 기계요소 주단조품 합성수지 등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금융위기 이후 수출품목 대부분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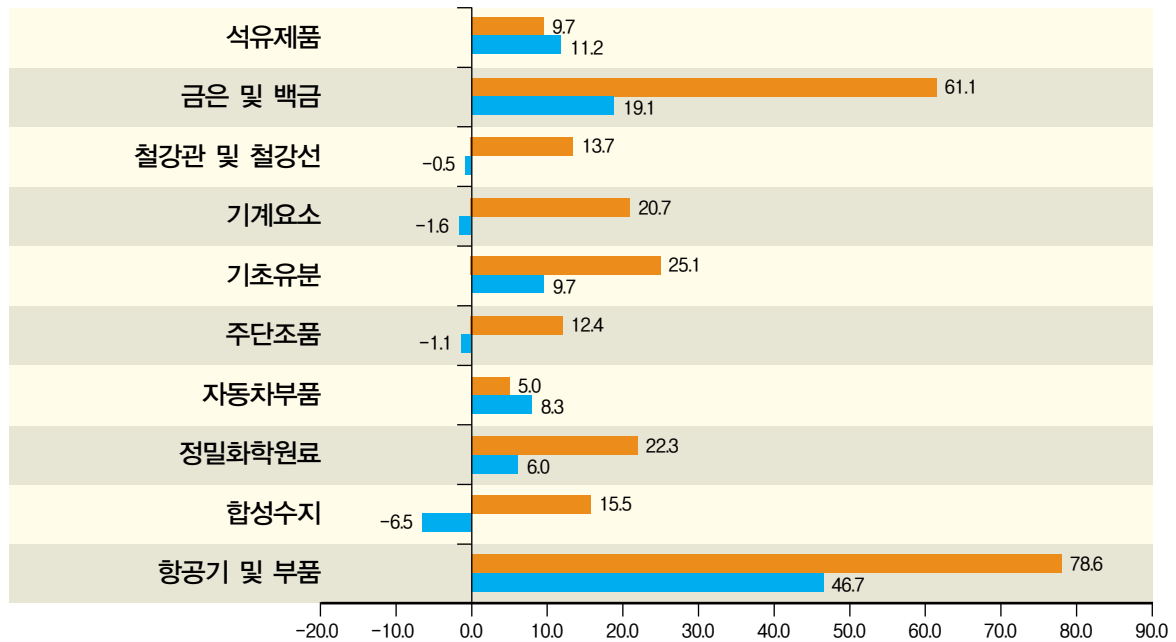
동남권의 대일본 수출품목 변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04년	석유제품	어류	철강관및 철강선	주단조품	영상기기	기초유분	반도체	알루미늄	기계요소	연체동물
2005년	석유제품	주단조품	철강관및 철강선	어류	기계요소	기초유분	금은및 백금	반도체	합성수지	동제품
2006년	석유제품	주단조품	금은및 백금	동제품	기계요소	철강관및 철강선	합성수지	어류	기초유분	반도체
2007년	석유제품	주단조품	금은및 백금	기계요소	철강관및 철강선	알루미늄	동제품	기타비철 금속제품	어류	합성수지
2008년	석유제품	금은및 백금	기계요소	철강관및 철강선	합성수지	주단조품	알루미늄	무선 통신기기	어류	어육및 어란
2009년	석유제품	금은및 백금	기계요소	주단조품	철강관및 철강선	합성수지	어육및 어란	어류	기초유분	무선 통신기기
2010년	석유제품	금은및 백금	철강관및 철강선	합성수지	기계요소	주단조품	어육및 어란	자동차 부품	어류	정밀 화학원료
2011년	석유제품	금은및 백금	철강관및 철강선	기계요소	합성수지	선박해양 구조물	정밀 화학원료	주단조품	자동차 부품	어류
2012년	석유제품	금은및 백금	철강관및 철강선	선박해양 구조물	기계요소	주단조품	자동차 부품	원동기및 펌프	정밀 화학원료	어류
2013년	석유제품	금은및 백금	철강관및 철강선	기계요소	기초유분	주단조품	자동차 부품	정밀 화학원료	합성수지	항공기및 부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의 대일본 수출품목 연평균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4~08년 ■ 2009~13년

신흥국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 정체

신흥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2011년 이후 3년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3년 이후 인도는 2~3위권에서 등락했으나 2013년에는 4위로 밀려났다. 사우디가 2013년에는 3위로 크게 약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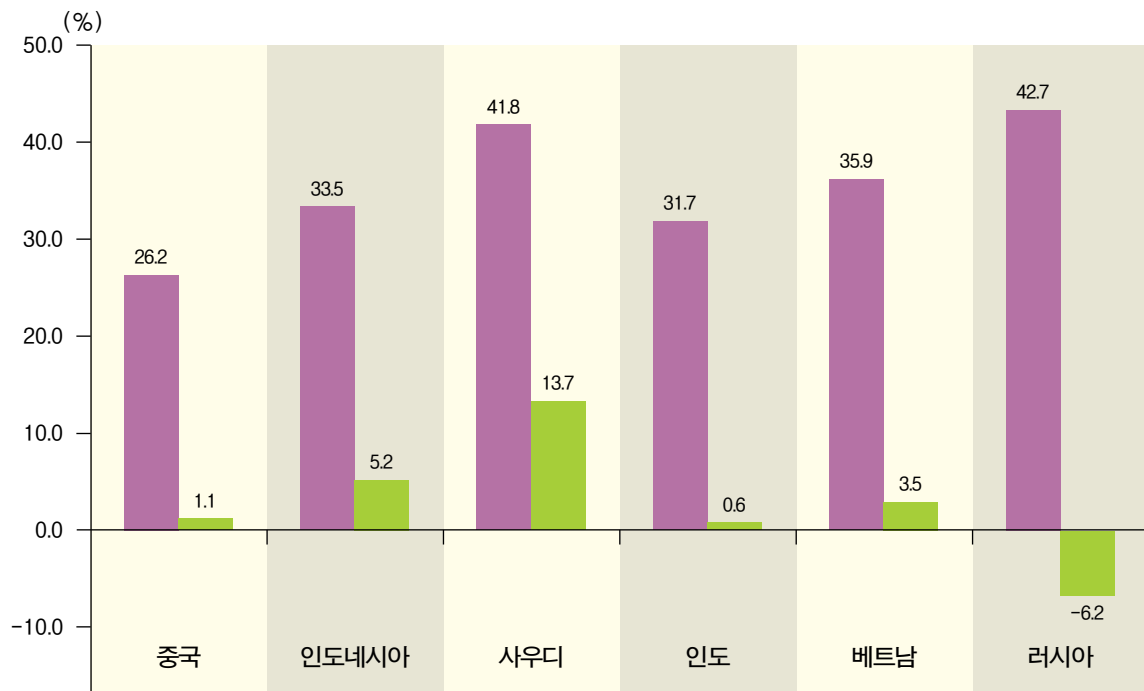
동남권의 주요 신흥국 수출 순위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04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터키
2005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2006년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07년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2008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베트남
2009년	중국	인도	UAE	인도네시아	브라질
2010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2011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
2012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	베트남
2013년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	인도	베트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 수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26.2%에서 2009~13년 중 1.1%로 크게 둔화되었다. 2009~13년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연평균 13.7%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각각 5.2% 3.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신흥국 수출 신장률은 크게 둔화되었다. 러시아는 2009~13년 중 연평균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주요 신흥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4~08년 ■ 2009~13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대한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합성원료를 중심으로 둔화

중국에 대한 최대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이다. 최근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석유화학합성원료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석유화학중간원료가 3위로 약진했다.

동남권의 대중국 수출품목 변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04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선박해양 구조물	자동차	기타석유 화학제품	알루미늄	기초유분
2005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알루미늄	기타석유 화학제품	동제품
2006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동제품	무선 통신기기	알루미늄	기타석유 화학제품	기초유분
2007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동제품	무선 통신기기	기초유분	자동차 부품	자동차	기타석유 화학제품
2008년	석유제품	무선 통신기기	석유화학 합성원료	합성수지	선박해양 구조물	석유화학 중간원료	동제품	기초유분	자동차	철강판
2009년	석유제품	무선 통신기기	석유화학 합성원료	선박해양 구조물	합성수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기초유분	동제품
2010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선박해양 구조물	합성수지	건설 광산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동제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2011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선박해양 구조물	건설 광산기계	석유화학 중간원료	합성수지	자동차	동제품	기초유분	원동기및 펌프
2012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석유화학 중간원료	합성수지	동제품	선박해양 구조물	자동차 부품	자동차	기초유분	원동기및 펌프
2013년	석유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석유화학 중간원료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 구조물	동제품	자동차	기초유분	원동기및 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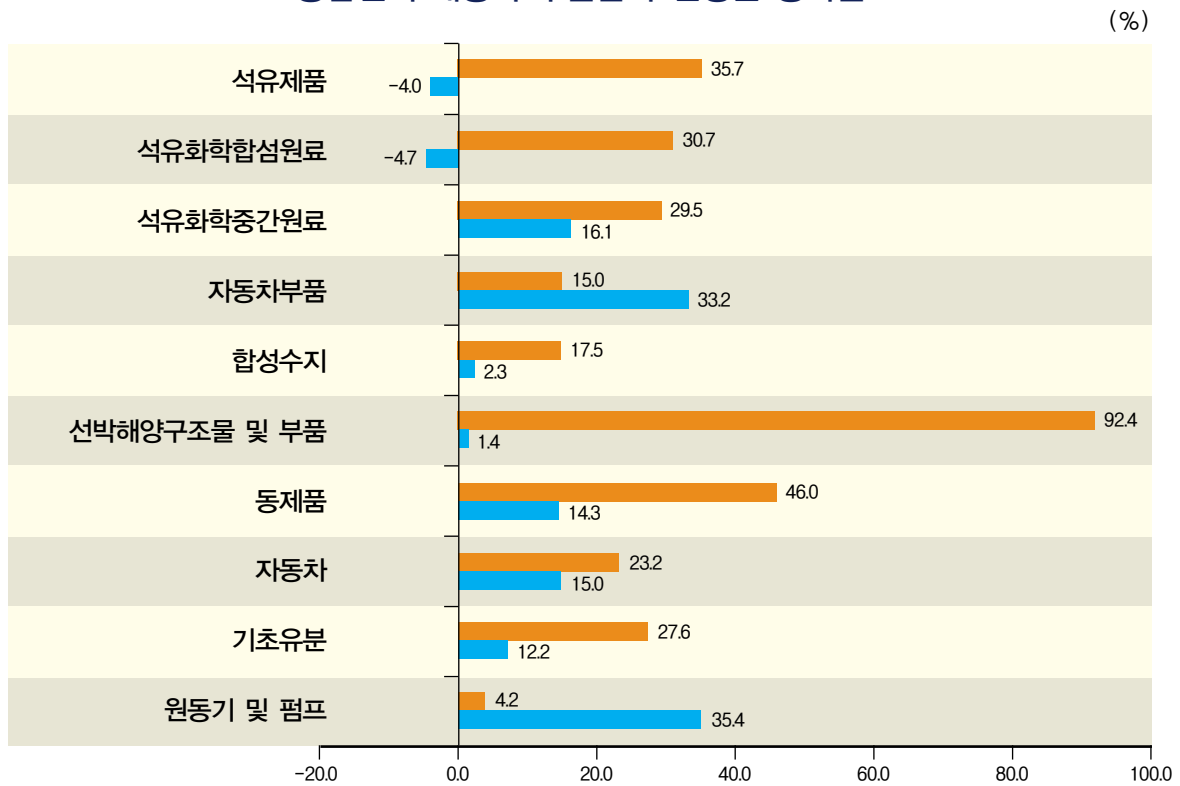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석유제품은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35.7% 증가하였으나 2009~13년 중 연평균 4.0% 감소하였다. 석유화학합성원료도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30.7% 성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4.7% 감소하였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위기 이전 연평균 15.0%에서 2009~13년 중 연평균 33.2%로 높은 신장세를 시현하였다. 원동기 및 펌프도 2009~13년 중 35.4%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대중국 수출품목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4~08년 ■ 2009~13년

향후 동남권 수출은 삼중고(三重苦)에서 벗어날 전망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부진은 수출 상대국 및 품목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수출 1위 지역인 EU의 수입수요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EU의 수출 상대국 순위가 3위로 하락할 정도로 EU에 대한 수출이 매우 부진하였다.

다음으로 EU 경제의 위축은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을 위축시킴으로써 동남권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교역량 정체로 전세계적으로 해운경기가 위축되어 동남권 1위 수출품목인 선박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전후 경제성장률 및 수입증가율

(%)

구 분	2004~08년		2009~13년	
	실질GDP성장률	수입증가율	실질GDP성장률	수입증가율
전세계	4.6	7.7	3.0	2.4
선진국	2.4	5.9	0.8	1.0
신흥국	7.6	12.7	5.3	4.9
동남권 수출증가율	23.6		1.1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수출이 겪은 삼중고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EU의 성장이 점차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및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및 EU 경제 회복으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여 전세계적인 선박량 과잉문제가 완화됨으로써 선박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6%로 높아지고 수입 증가율도 4.7%로 개선될 전망이다. 2015년 이후 중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 둔화의 주된 요인이었던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제 및 수입수요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연평균 1.2% 성장에 그쳤던 미국이 향후 5년간 2.6~3.5% 성장하고 동기간 -0.2% 성장으로 위축된 EU가 1.3~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항공기부품 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의 수입수요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부진했던 석유제품 화학원료 등의 수출이 다시 회복되고 철강 합성고무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성장률 및 수입증가율 전망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GDP 성장률	전세계	3.6	4.0	4.1	4.1	4.1
	선진국	2.0	2.5	2.6	2.6	2.5
	(미국)	2.6	3.4	3.5	3.4	3.1
	(일본)	1.2	1.1	1.2	1.1	1.1
	(독일)	1.4	1.4	1.3	1.3	1.2
	(프랑스)	1.0	1.5	1.7	1.8	1.9
	(영국)	1.9	2.0	2.0	2.1	2.3
	신흥국	5.1	5.3	5.4	5.5	5.5
	(중국)	7.3	7.0	7.0	7.0	7.0
	(인도네시아)	5.5	6.0	6.0	6.0	6.0
	(인도)	5.1	6.3	6.5	6.7	6.7
수입 증가율	전세계	4.7	5.4	5.6	5.8	5.9
	선진국	4.0	4.6	5.1	5.3	5.5
	(미국)	3.5	4.5	4.6	4.7	4.4
	(일본)	3.8	4.6	5.7	5.8	5.9
	(독일)	7.4	4.5	5.0	6.0	7.0
	(프랑스)	2.7	3.1	3.2	3.6	3.7
	(영국)	2.0	3.7	4.1	4.1	4.1
	신흥국	5.9	6.7	6.5	6.6	6.6
	(중국)	6.8	6.4	6.0	6.0	6.0
	(인도네시아)	5.5	8.1	8.5	7.1	7.9
	(인도)	5.5	8.2	9.0	9.1	10.0

자료 : IMF (2013.10)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BS BS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S금융지주(www.bsfnn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85(범일동)

연락처 : BS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626 Fax : 051-620-3620